

(2023년 09월 06일)

브리지스톤, 타이어 경량화 제작 기술 '엔라이튼(ENLITEN)' 기술을 모터스포츠에 도입 - 타이어 원료의 63%를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타이어를 모터스포츠에 공급

- 브리지스톤, 재생한 카본블랙, 재활용한 오일, 쌀겨(벼껍질) 추출 실리카 및 기타 재활용과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제작한 친환경 타이어를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공급
-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경량화 제작 기술인 엔라이튼(ENLITEN)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타이어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
-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모터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한 브리지스톤의 노력은 브리지스톤이 추구하는 기업 커미트먼트 중에서 'Energy(에너지)'와 'Emotion(감동)' 가치 표방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이 타이어 원료의 63%를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친환경 타이어를 세계 최대의 태양광 동력 자동차 경주 대회인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 2023년(Bridgestone World Solar Challenge, BWSC)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공급한다.

브리지스톤이 공급할 타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약 3,000km를 오직 태양광 동력만으로 종주하는 특별한 도전에 맞춰 맞춤형으로

개발됐으며,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경량화 제작 기술인 엔라이튼(ENLITEN) 기술을 사용해 개발됐다. 엔라이튼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타이어가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2023년이 처음이다.

극한의 레이싱 조건과 상황에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모터스포츠 레이서들의 안전을 위해 브리지스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브리지스톤은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터스포츠를 통한 기술, 생산, 물류, 브랜드 명성의 혁신과 함께 재능 있는 인재 발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브리지스톤이 모터스포츠 활동을 시작한 지 60주년을 맞은 2023년,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모터스포츠에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고 있다.

1. 엔라이튼(ENLITEN): 전기차 시대 프리미엄 타이어의 디자인을 위한 브리지스톤의 새로운 기술

브리지스톤이 개발한 타이어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 기본 기술인 엔라이튼(ENLITEN) 기술이 2023년 개최되는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에 공급되는 모터레이싱용 타이어에 사용된다.

엔라이튼(ENLITEN)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타이어와 비교해 타이어 성능면에서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을 뛰어넘으면서도 친환경 성능에서도 기존 타이어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엔라이튼(ENLITEN) 기술의 진일보한 성능 특성을 통해 브리지스톤은 사회적 가치와 고객 가치 증대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2023년에 공급하는 엔라이튼(ENLITEN) 기술을 탑재한 타이어는 호주대륙을 남북으로 장장 3,000km를 종단하는 레이싱에 참가하는 참가팀들이 극한의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요구되는 낮은 회전저항, 내마모성과 경량화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 개발된 타이어다. 브리지스톤은 레이싱 참가팀들의 기술적 요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타이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엔라이튼 기술을 선보이고 엔라이튼 기술이 탑재된 타이어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하게 된다. 브리지스톤은 모터스포츠용 및 일반용 타이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엔라이튼(ENLITEN) 기술이 탑재된 맞춤형 타이어를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2. 타이어 원료 중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를 63% 사용한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타이어

브리지스톤이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2023년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의 비율(MCN - Material Circularity Number)이 63%에 이른다. 2019년에 개최된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대회에 공급된 타이어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 비율은 약 30%.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2023년에 공급되는 타이어에 사용된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들로는 재활용 유기 섬유, 재생 카본블랙, 재활용 고무 화학제, 재활용유과 재활용 강철을 사용한 보강재가 있다. 뿐만 아니라, 크루저 클래스 경주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공급되는 타이어는 쌀겨에서 추출한 실리카와 이미 사용된 타이어에서 열분해를 통해 회수한 카본블랙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개발됐다.

3. 타이어 운송에서 저탄소 배출 물류 구현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 2023년에 공급되는 타이어의 운송을 위해서 브리지스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물류기업 DHL을 선택했다. DHL은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솔루션을 통해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로 타이어를 운송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해상 연료의 사용(인셋팅 프로그램)과 자발적 배출 금표준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VER Gold Standard)을 통한 보상(오프셋팅)을 조합해 100% 탄소 중립 운송을 실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를 63%나 사용하는 엔라이트(ENLITEN) 타이어와 타이어 공급망과의 협력을 통해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모터스포츠의 미래에 브리지스톤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젊고 다양한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에서 미래의 보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사회에서 활약할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브리지스톤이 타이틀 스폰서로서 이들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리지스톤 모터스포츠 나오타카 호리오 이사는 말한다.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과 사업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 브리지스톤은 지속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고객 가치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브리지스톤의 비전 실현에 있어서 브리지스톤 월드슬라챌린지는 모터스포츠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접목시키는 독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는 브리지스톤이 제창한 여덟 가지 기업 커밋먼트(Bridgestone E8 Commitment) 중에서 '탄소중립의 모빌리티 사회를 구현(Energy)'하고, '모빌리티 세상에서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전파(Emotion)'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스누 솔로(SNU SOLO, 회장 정서연, 재료공학부)가 자체 개발한 태양광 자동차 '도깨비'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 2023년 대회에 출전한다.

브리지스톤 월드솔라챌린지 2023년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는 10월22일(일요일) 개최된다. 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orldsolarchallenge.org/>

###